

에디터십이 개척해야 할 '신대륙'

김형윤 | 김형윤편집회사 대표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오늘의 온라인 세계가 책으로 치자면 교과서 중심 시대, 그러니까 편집의 기능이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따라서 종이책에 충성하던 ‘편집’이 앞으로 개척해야 할 무한한 황무지가 이 새로운 세계 속에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출판에서 ‘편집’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이런 의문은 ‘출판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와 상통한다.

책—종이로 만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능 또한 쇠퇴하지 않을 것이라 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주장을 부인할 이유는 현재로는 없는 것 같다. 다만 그럼에도 이른바 인터넷이나 전자책 같은 것들이 새로운 시장을 점점 더 넓게 형성해갈 것은 분명하며, 그 때문에 재래시장(출판)의 역할이 어느 식으로든 한정되리라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편집 기능은 더 중요해져

인조 다이아몬드가 없던 시대에는 돌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만 다이아몬드였다. 돌에서 나온 천연 다이아몬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더 비싸질 터이며, 상대적으로 인조 다이아몬드는 시장 가격이 점점 더 싸질 것이다.

종이로 만든 책을 천연 다이아몬드라고 해보자. 그리고 연마 과정을 편집이라고 해보자. 앞으로 책은 더욱 귀해지며, 같은 다이아몬드라도 연마가 잘 된 다이아몬드가 값이 더 나가듯이 편집이 잘 된 책이 더 귀한 대접을 받으리라. 이런 가설을 인정한다면 출판에서 편집의 기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해지리라.

그런데 문제는 다이아몬드의 수요층이 한정될 수밖에 없듯이 고전적인 출판 시장이 한정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같은 예측은 사람의 하루가 24시간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텔레비전 같은 영상매체나 컴퓨터 앞에 앉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책과 대면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오늘 많은 출판인들이 출판의 위기를 역설하고 있다. 영상 미디어와 전자 미디어의 협공 속에서 인쇄매체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며, 이리다가 출판의 입지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판의 활로를 전자나 영상과 차별화되는 종이와 문자의 속성을 더욱 특화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책이 전통적으로 인류에게 제공해온 정보의 보편성은 침해당하더라도 휴대와 운반의 편의성이라든가 종이만이 줄 수 있는 촉감과의 친화성을 극대화한다는 발상이 그런 것이다. 말하자면 천연 다이아몬드 지향이다.

이런 생각들은 그 나름으로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출판이 반드시 종이만의 순수성을 고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특히 ‘편집’이 고전적인 책의 기능과 연관해서만 의미를 지니는가 하고 출판인들이 스스로 물어보는 것은 이 시점에 필요해 보인다. 또 주어진 정보를 책이라는 일정한 틀 속에 담아내는 물질화 과정을 ‘편집’이라고 한정해서 바라보는 시각

이 이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도 반성해봐야 할 것이다.

‘편집’의 영역 파괴해야

미래의 출판은 종이와 전자와 영상의 적절한 접점 위에서 새로운 영역을 찾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가운데 이미 그 같은 접점을 찾기 위한 시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영상매체와 전자매체를 활용한 정보산업이 급격하게 융성함과 더불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력에 비해 이른바 ‘콘텐츠’를 구성하고 제공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오늘의 온라인 세계가 책으로 치자면 교과서 중심 시대, 그러니까 편집의 기능이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따라서 종이책에 충성하던 ‘편집’이 앞으로 개척해야 할 무한한 황무지가 이 새로운 세계 속에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다만 그 같은 사실을 아직은 출판인도, 온라인 종사자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료를 모아 엮고 짜서 신문·잡지·서적 등을 만드는 일’

이것은 사전에서 설명하는 전통적인 ‘편집’의 개념이다. 이제 우리는 ‘편집’이라는 일이 과연 ‘신문·잡지·서적’ 등을 만드는 데만 한정돼야 하는가 반성해봐야 할 것 같다.

‘편집’은 스스로 영역을 파괴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런 점에서 ‘편집’이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풀이돼야 할 것이다.

‘정보를 모으고, 자르고, 엮고 짜서 하나의 재화를 만드는 일’

여기서 ‘재화’는 전통적인 책일 수도 있고, 온라인 위의 무엇일 수도 있다. 미래의 편집은 책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미래의 출판 또한 종이 위에서만 ‘그의 나라’를 건설하지는 않을 것이다.●